

韓國의 進出을 기다리는 카리브諸國

現地法人形態의 合作投資 有望

Discussions on the Tour to the Industries
in North and Central America

— 힘의 凝集으로 世界속의 雄飛도 멀지 않다! —

時代는 經濟戰爭時代를 맞고 있다. 世界經濟는 지난 數10年間에 큰 變貌를 일으켜 왔으나 그 基調는 多極化의 進展이었다. 그리고 發展途上國內에 있어서는 產油國, 新興工業國, 中所得國, 低所得國에의 內部的 分化가 進行되고 있다. 이러한 多極化와 分化속에 우리 韓國은 先進國 隊列로 向한 跳躍을 위해 輸出立國의 旗幟아래 輸出增大에 全力을 投球하고 있다.

오늘날 世界各國은 保護貿易主義를 더욱 強化함으로써 輸入의 障壁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韓國은 오는 2000년에는 2천 3백億달러 규모의 輸出을 達成해야만 하는 課題를 안고 있다.

우리 電氣界도 이제 輸出의 多邊化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虎窟을 찾아 世界的 구석구석을 뒤져봐야 한다. 여기에는 科學技術의 多樣化와 市場確保라는 兩局面이 있을 것이다.

여기 本協會는 이러한 國內外 情勢下에 友邦諸國의 電氣産業分野의 실패과악과 海外市場 開拓 및 技術情報 交流를 통하여 國內産業의 振興을 圖謀하기 위해 會員業·團體長과 重鎮幹部들로 이루어진 北·中美地域 産業視察團을 구성하고 지난 10월 6일 부터 26일까지의 21일간 캐나다, 美國, 파테달라, 코스타리카, 파나마등 諸國을 돌아보고 歸國한바 있다.

지난 83年 11月的 유럽地域 視察에 이어 다섯번째가 되는 이번 視察에서 얻은 이들 友邦諸國의 電氣産業界의 이모저모와 특히 海外市場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른 會員社 및 會員들에게 弘報하기 위해 歸國座談會를 가졌다.

“百聞은 不如一見”이라. 비록 斷片的이나마 캐나다, 美國, 코스타리카, 파나마의 오늘날 과연 어떠했는지 / 프리이 토오킹으로 進行된 이날의 對話內容을 간추려 紹介키로 한다.

紙面관계상 不得已 項目마다 參席者 全員の 發言을 다 收錄하지 못하고 重點의으로 整理하게된 點, 미리 參席者 諸位의 諒解를 求하고자 한다. 〈註 編輯者〉

日 時 : 1985. 11. 19(火) 17 : 30
場 所 : 喜園食堂(西小門)
協 會 側 : 金 光 錫 事務局長
 卞 鍾 達 調查部長
記錄·整理 : 張 世 元 弘報課長(本誌編輯)

- * 訪問國 및 業·團體 *
- 카 나 다 : 캐나다電機電子製造者協會
 : 웨스팅하우스社
 - 美 國 : 에디슨電氣協會
 : 제너럴일렉트릭社
 - 코스타리카 : 코스타리카電力會社
 - 파 나 마 : 파나마水資源電力公社

• 金光錫 事務局長 :

여러분의 協調로 이번 北·中美地域의 산업시찰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게 된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의 이번 시찰이 단순히 觀光的인 시찰이 아니라는點에서 20일간의 짧은 여행이지만 직접 目睹한 各國의 事情들을 格式없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以下 編輯上 敬語, 敬稱을 省略함)

*** 一般的인 所感 ***

• 崔相得 韓國安全公社 理事長 :

에너지波動으로 인한 世界經濟의 減速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특히 캐나다의 웨스팅하우스나 美國의 GE工場을 견학했을 때, 제작중의 상당한 부품이 修理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과 가스터어빈이나 디젤 등의 中型發電機가 많고 大容量發電機는 잘 볼 수 없었다.
이것은 각국의 經濟成長의 鈍化에서 오는 剩餘電力設備의 문제와 直結된다고 본다.

그리고 에너지消費節約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概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概念은 단순한 消費節約이 아니라 必要에너지는 使用하되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즉 使用合理化에 力點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機器개발과 효율제고에 정부지원과 투자촉진을 꾀하고 있었다.

또 한가지 移民의 나라 캐나다, 美國은 물론이고 오랜 植民地의 역사를 가진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은 人種의 다양함에서 정치, 문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歷史의 수레를 밀고 가고 있으나 하는 것을 느꼈고, 우리와 같은 單一民族 그것도 우수한 頭腦와 높은 教育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韓國은 오직 하나로 뭉쳐 그 힘이 凝集된다면 우리가 희망하는 世界속의 雄飛는 기필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 文叢坤 韓電東部支店長 :

우리가 방문한 電氣關係人들은 어느 나라이고 韓國의 급진적이고 성공적인 經濟發展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캐나다와 美國의 電力설비 메이커들은 앞으로의 韓國의 發電所 建設계획이나 送配電 投資에 대

미국 대통령관저인 백악관 뜰에서 기념촬영한 시찰단 일행.
左로부터 趙宰英, 韓斗錫, 金光錫, 朴容澈(현지합류) 崔相得, 元容善, 文叢坤, 金炯全, 尹太石, 宋在根, 金容鉉 諸氏.



* 座談會 參席者

- | | | | |
|-----|--------------------|---|----------------------|
| 團長 | 崔相得 (韓國電力安全公社 理事長) | 〃 | 趙宰英 (新亞電氣工業(株) 常務理事) |
| 副團長 | 金光錫 (本協會 事務局長) | 〃 | 元容善 (三和企業(株) 會長) |
| 幹事 | 尹太石 (京仁에너지發電部次長) | 〃 | 文叢坤 (韓國電力公社 東部支店長) |
| 團員 | 韓斗錫 (東美企業(株) 專務理事) | 〃 | 宋在根 (大進電機(株) 社長) |
| 〃 | 金容鉉 (京甫電機(株) 社長) | 〃 | 金炯全 (現代企業社 社長) |

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또 어느 나라에서나 韓國人의 勤勉性은 韓國을 방문한바 있는 사람들이나 현지 교민들의 활동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그러한 면에서 韓國人을 존경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예로 Costa Rica 電力會社의 副社長이 韓國을 방문했을 때 韓國電力公社에서 한국의 모든 국민들은 토요일에도 일을 한다는 말을 듣고 의아하게 생각하며 놀란 일이 있었다.

또 한가지는 해외교포들은 모두가 祖國의 發展像을 자랑으로 하고 있으며 또는 念慮하는 強한 愛國心을 갖고 있음을 알았다.

사람은 누구나 海外에 나가 살게되면 祖國의 고마움과 愛國心을 갖게 되는 것이다. 캐나다, 토론토, LA, 뉴욕, 호놀룰루등 가는 곳마다 우리 교포들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는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 유대인들조차 韓國人의 活動相에 威脅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마음 든든함을 느꼈다.

또 經濟大國인 美國은 政治的으로 가장 民主主義가 잘 되어있고 모든 국민들이 잘 살고 있는 나라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을 것이나 이번 처음으로 본 美國은 도착하면서 얼마동안은 겉으로 보이는 美國人들은 어딘가 맥이 풀려 있고 철저한 個人主義, 政治無關心, 극심한 빈부의 차, 심지어는 일몰 후에는 시내를 마음놓고 돌아다닐 수 없는 침묵의 거리가 되는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곳 電力會社, 電氣協會, 베이커등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家族爲主의 철저한 個人主義的 思考를 갖고 있으면서도 社會 各組織體의 구성원으로서 맡은바 일을 성실히 수행하며 國家

社會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면서 生活하는 美國에는 오랫동안 뿌리가 박혀있는 질서와 믿음이 오늘날의 巨大한 美國을 지탱하고 있다는 結論을 얻게 되었다.

• 金光錫 事務局長 :

△ 支店長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과연 美國이라는 나라는 廣大한 國土와 重要한 資源의 혜택을 받으며, 多樣한 人種과 民族을 흡수하여 개발된 世界最大의 富와 生産力을 자랑하는 나라임을 實感했다. 그러나 "偉大한 美國"도 역사의 흐름에 따라 그 偉大함을 유지하는데 있어 支拂해야 하는 심각한 問題가 없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美國이 잉태하고 있는 고민, 즉 民主主義가 낳은 철저한 個人主義 貧富의 差, 不安한 人種問題 등을 거리에서나 뒷골목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 캐나다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막연하게나마 英聯邦國의 一員이라고만 생각해 왔으나 이번 視察를 통해 蘇聯에 이어 世界 第2의 國土의 넓이를 자랑하며 그 雄大한 自然美는 世界 第1의 魅力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특히 美國과 같이 다양한 인종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安定된 政治와 경제 그리고 社會는 풍부한 資源과 함께 창창한 未來를 기약하는 나라임을 알았다.



〈카나다〉

면적	997만 6,139km ²
인구	2,409만(1982)
인구밀도	2.4인/km ²
수도	오타와
공용어	영어, 프랑스어
통화	캐나다 달러(C\$)
환율	1달러 = 1.186캐나다달러(1981)
국민소득	국민총생산 2,284억 6,800만달러 1인당 9,640달러(1979)
무역	수출 631억 달러 수입 577억 달러(1980)

〈코스타리카〉

면적	5만 700km ²
인구	227만(1981)
인구밀도	45.4인/km ²
수도	상호세
공용어	스페인어(語)
통화	콜론(colon, C.)
환율	1달러 = 21.763C(1981)
국민소득	국민총생산 38억 2,000만 달러 1인당 1,099달러(1980)
무역	수출 9억 2,500만 달러 수입 14억 730만 달러(1979)

〈파나마〉

면적	7만 5,650km ²
인구	194만(1981)
인구밀도	25.6인/km ²
수도	파나마시티
공용어	스페인어
통화	발보아(B)
환율	1달러 = 1B(1982)
국민소득	국민총생산 31억 7,000만달러 1인당 1,730달러(1980)
무역	수출 3억 1,500만 달러 수입 15억 4,000만 달러(1981)

△中南美계국은 아직도 工業分野에서 落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混合된 人種의 역사와 自然의 혜택이 주는 懶怠性 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이들 나라에 進出하게 된다면 값싼 人件費등 그의 취약점이 오히려 유리한 여건으로 바꾸어지는 可能性도 없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번 訪問기간 캐나다나 美國과 같은 우수한 회사들로부터 상당한 예우와 접대를 받았는데 이는 우리 방문단의 위치 때문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國力이 그만큼 伸長된데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더욱 분발 노력해서 現時點에서부분적으로 다소 不滿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단번에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점차 補完 發展시켜 나간다는 자세로 國力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난을 참고 견디며 이를 國力으로 昇華시키는 叢知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 元容善三和企業會長 :

美國과 캐나다의 發展要素는 넓은 領土와 풍부한 資源에 있음을 實感했다. 그러나 좋은 두뇌와 敎育을 가진 우리國民도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으리라는 自信을 갖게 되었다.

• 韓斗錫東美企業專務 :

캐나다, 美國을 거쳐 파테말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中美國가를 돌아보고 호놀룰루의 정취를 위로하고 다시 귀국하기까지 약 2주간의 여행일정은 未知의 세계에 대한 現實感과 찬란한 文明의 현장을 답사하는 기쁨과 아직은 발전의 비상을 꿈꾸는 나라들에 대한 많은 想念들을 한마디로 표현키 어려우나 어려모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로 유익한 여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나는 무엇인가 開發途上國의 한국민으로서 경험하고 배우고 익혀 祖國의 繁榮에; 그리고 내企業의 이익에 기여해야겠다는 나름대로의 계산에 초점을 맞추어 행동했다.

장엄한 나이아가라의 장관 유서 같은 워싱턴廣場의 古色찬란한 경관, UN本部, 엠파이어 스테이트 自由의 女神像등 거대한 文明의 현장과 자유에의 意志로 표현된 美國인의 인상, 그리고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테말라에서 목격한 天惠의 아름다움등은 내 기억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추억들을 심어 주었다.

그리고 귀국길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교포 정운기씨

가 밝힌 1910年代 祖國의 獨立을 위하여 이곳 교포들이 헌신한 愛國에의 노력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 실로 愛國이 무엇인가 한번쯤 조용히 음미 해보는 것도 좋겠다.

• 趙宰英 新亞電氣工業 常務 :

이번 視察의 특징은 美國, 캐나다등 先進國과 中美의 中進國 및 低開發國을 동시에 볼 수 있었다는 점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다양한 수준의 산업과 접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位置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契機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어진다.

그리고 한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그야말로 全世界가 日本의 '독점공급시장'이라고 느껴질 만큼 일본상품의 해외진출이 활발하다는 점이다. 특히 中美의 경우 發電 및 送配電설비는 말할 것도 없고 家電제품,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나라가 일본상품만을 쓰고 있는 느낌이었으며 우리나라 상품의 보다 많은 진출이 요망되었다. 물론 그러한 나라들이 인구 수백만의 작은 시장이기는 하나 輸出市場의 多邊化라는 側面에서는 이러한 작은 시장이라도 하루빨리 개척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尹太石 京仁에너지 發電部次長 :

신흥經濟大國으로 성장한 캐나다는 찬란한 未來가 약속된 땅이었으며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으로서의 美國의 발전은 앞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시련이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파테말라등 中美지역 국가 역시



캐나다, 웨스팅하우스 EB (Ted) Priestner社長으로부터 자료를 기증받는 崔相得단장.

현수준에 머무를 것 같은 인상을 질게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캐나다와 같은 先進國으로서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며 美國과 같은 經濟大國이 못되더라도 中美지역 국가를 보다는 월등한 발전이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여 부단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특히 기술적 전통을 이어가는 웨스팅하우스의 가스터빈공장과 제네럴일렉트릭의 蒸氣터빈 공장에서는 배울점이 많았다.

• 金容鉉 京甫電機 社長 :

코스타리카에 대해서 한마디 느낀 소감을 말하겠다. 코스타리카는 원래 <풍요의 해안>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중앙 아메리카 여러나라 가운데 드물게 政情이 안정된 나라로서 우리 한국과는 62년에 修交했으며 文化協定, 貿易協定이 체결되어 있었다. 코스타리카에는 현재 한국공원과 교민 60여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北韓도 동시 수교국이 되어 있었다. 거리에는 중남미 여러나라와는 달리 대다수 주민이 백인(스페인계로서 80% 이상)이었으며, 나머지는 백인과 인디오의 혼혈인 메스티조계라고 한다. 이들은 모두 스페인어를 사용하며 가톨릭교 신자들이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코스타리카는 교육도 잘 보급되어 초등교육은 5년제의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으며 문맹률이 中南美지역에서 가장 낮아 民度가 높다는 것이다. 대외무역면에서는 코피·바나나등의 농산물이 수출의 주종을 이루며, 기계·자동차 전기기기·석유제품·철강등이 주로 수입되고 있는데 주로 美國과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과는 다른 이야기이지만 한가지 배울 수 없는 것은 코스타리카에는 美人이 많았다는 사실인데 동양적인 친근감을 느꼈다. (웃음...)

• 宋在根 大進電機社長 :

美人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이나라는 교육수준이 그리 높지 않아서 西歐여성들과 같이 세련된 맛은 없었으나 그 검은 눈동자에는 다른 民族에서 보기도문 情熱的인 아름다움이 엿보였다. 코스타리카 처럼 美人이 많지는 않을지 모르나 이나라 女性의 정열미는 「베토오벤」의 (熱情 소나타)에 못지 않는 女性美의 으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나라는 單一民族이 아니라 매우 복잡한 인종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듣자니 이 땅의 옛 주인인 본 토박이 인디오, 스페인과 인

디오 또는 흑인과의 혼혈종, 그리고 파나마運河를 만들 때, 동원되어 왔던 자메이카 흑인의 후손들이 어울려 살고 있는데다가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이 자그마한 나라는 人種展覽會場과도 같은 느낌을 주었다.

*** 各國 訪問處의 技術水準과 所感**

• 崔 相 得 :

△ 캐나다 웨스팅하우스... 공장내부의 배치가 잘 되어 있었다. 試驗설비등을 흥미있게 시찰했으며 특히 현장을 안내하는 要員들의 열성에 상당한 감명을 받았다. 自社제품의 強點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열의에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았다. 특히 스팀터빈에 대한 새로운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설명이 그러했다.

△ 캐나다 電氣電子製造者協會... 208개 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동協會는 政府와의 협력으로 개발연구 人力資源 확보와 교육, 에너지政策諮問, 國際무역과 관련된 협조, 그리고 수용가를 위한 情報등을 다루고 있으며 標準化委員會, 雇傭委員會등 8個 委員會를 운영하여 업체들에 대한 전의와 상호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 GE (General Electric Company) GE社의 방대한 조직을 어느 한부문을 보고 평한다는 것은 여간 미안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 공장을 시찰하고 느낀 소감으로 GE의 歷史성과 組織力을 단번에 알 수 있었고 현황설명과 안내원의 자세에서 世界科學의 頂단을 지향하는 그들의 底力을 엿 볼 수 있었다. 작업공정에 따라 잘 정돈된 Line과 정리된 부품, 레야릴 수 없는 시험실, 그속의 완숙한 자태의 試驗員, 하나같이 부러울 뿐이었다.

△ GE R&D Center... 깨끗하게 단장된 研究所의 景觀, 공해가 있다면 잔'을 짚을 때, 나는 풀내음이 유일한 공해라며 조크하, 그들의 여유있는 말에서 정말 부러움을 느꼈다. 약 2,000명이 4개시험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 센터에는 約 1,200명의 自然科學, 技術, 技能者가 있으며 465명의 박사자격 소지자가 있다고 하며 世界最大의 研究院으로서 권위와 실비를 자랑하고 있었다. 年間 예산이 20億달러라고 하니 쉽게 짐작할 만하다.

△ EEI (Edison Electric Institute)... 에디슨電氣協會의 광대한 업무를 단시간에 파악한다는 것은 무리하다는 것을 알았다. 동協會는 수용가와 전기업체를 위해

많은 분야를 독자적으로 연구하여 발표하고 자문에도 응하고 있었으며 年間豫算이 약 3億불에 달하니 우리 協會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그들이 준비한 수준 높은 需要豫測方法과 商品單位當 電力消費趨勢分析, 配電系統 電壓降下方案 研究 등의 설명은 많은 참고가 되었다.

EI가 발행하는 각종 자료를 카탈로그로 작성 배포하여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도 참고할만한 것이었다.

△ Costa Rica 電力公社... 코스타리카는 농업국가로 電力多消費의 산업생산은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기후가 좋아 “常春의 나라” “中美의 스위스”로 불리워지는 水資源이 풍부한 나라로서 국민소득이 1인당 1,500불 정도로 中美에서는 안정된 나라이다. 副社長 Arguello 씨에 의하면 약 1,200만kw의 水力資源을 갖고 있고, 현재 電力수요의 95%를 수력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로 꿈같은 부러운 이야기다. 發電設備 용량은 약 739 MW이며, 그중 水力 584MW 나머지가 디젤 등으로 되어 있으며 首都 SANJOSE를 중심으로 人口의 반이 밀집되어 있어 重要需用이 편중되어 있고 散在된 지역에 小容量 發電이 분포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이 公社는 電氣사업과 通信사업을 겸업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電氣사업에 있어서는 發送電 사업을 주로 하고 일부의 지역 配電事業도 하고 있는데 殘余는 地域配電會社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수준이나 설비는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직에 있어서는 7명으로 구성된 理事會 밑에 社長을 Top으로 하는 운영조직으로 종업원은 7,900명, 그중 행정이 1,400명, 전기분야 기술인력이 4,200명, 통신분야가 2,300명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投資會社 要員 1,100명이 별도로 동공사 配電業務를 담당하여 지원하고 있었다.

△ Panama 水資源公社... 파나마는 農商業이 발달되어 1인당 국민소득이 2000弗정도로 中美에서는 가장 소득이 높고 세계 여러나라에서 다투어 시장개척에 나서고 있는 나라이다. 水資源이 약 2,500MW정도이며, 계속 水力發電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의 總發電 설비는 약 610MW로 電力需要의 70%가 Panama City에 편중하고 있는데 주력용 전력은 전체의 30%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産業용은 25%에 불과하다하니 經濟구조를 짐작할 수 있었다.

電力系統은 230KV 送電線을 기간으로 115KV 送電방식을 택하고 있었으나 금년에 파나마北端에 300MW의 水力發電 1基(150MW)가 준공케 되어 있어 파나마運河근방 Chorrera까지 345KV 送電線을 건설중에 있었다. 특기한 것은 電力料金の 근간이 되는 投資報酬率은 법률로서 8.75%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수준은 小容量汽力發電과 가스터빈을 主軸으로 운전한 경험을 살려 中容量 水力發電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 있어 技術開發이 다소 미흡하다는 이야기다.

• 文 景 坤 :

△ 캐나다 電氣電子製造者協會는 電力會社와 製造者들과의 自主的인 협력으로 윈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例로서

World, Trade, Center에서 있었던 Special Meeting에서 協會會員으로 참석한 電力設備에이커의 해외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韓國의 발전소 건설계획이나 기기판매를 위한 관심이 노 노력을 하고있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協會의 기능을 活性化하여 외국과의 시장개척 가능성도 생각해 보았다.

△ 캐나다의 Westing House는 韓國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터어빙을 공급, 잘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成功事例로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後續 建設계획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 美國 GE社의 R&D Center...형소 우리가 알고있던 GE社 즉 Generator나 Turbine 또는 電氣機器 메이커로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공장을 보니 化學, 電氣 Engineering, 機械등 각분야의 첨단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었다. 최근 이 연구소 출신이 노벨物理賞을 위시하여 각종 세계적인 학자를 많이 배출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 美國의 메이커들은 剋利만 追求하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많은 투자와 기업육성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세계각국의 유능한 연구원중에 우리나라 博士가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흐뭇한 自負心을 갖게 되었다. 또한 GE에서는 Turbin이나 Generator등 첨단기술의 개발에 주력하고 기타 電氣기기는 부품을 수입하거나 제 3국에서 제작하도록 한다는 經營政策임을 알았다. 우리 氣電機器 메이커들에게는 상당한 관심과 희망적인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본다. GE역시 韓國의 발전소건설이나 송변전시설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터어빈部門에는 韓國擔當 營業부장을 두고

있을 정도이다.

△ 파나마, 코스타리카의 電氣관계 技術水準은 우리나라와 比較해 볼 때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例로 발전소의 기기가 고장나면 부품은 美國이나 日本에서 기술지원과 함께 공급을 받고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中美지역에 대한 전기기기 공급이나 기술지원의 余地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韓斗錫 :

△ 캐나다의 웨스팅하우스를 방문했을 때는 사장단으로 구성된 임직원들로부터 최대한의 환대를 받았다. 日本人같은 오만함이 없는 大國다운 자신감과 친절을 보고 느낀바 많았다.

특히 가스터어빈 생산공장 그리고 각 工程上의 品質管理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에게 매우 고무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자신과 의욕을 일깨워 주었다. 70여분간의 현장 견학을 통해 얻은 느낌은 僑民들의 연령이 대부분 40세 이상의 중년층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얼마나 자기 직업을 天職으로 알고 충실하게 일하고 있으며 자기의 인생을 한곳에 묻고 기술축적에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 미국의 General Electric Company의 방문에서는 바로 이곳이 現代와 未來를 창조하는 科學기술의 本産임을 인정하는데 전혀 인색할 수가 없었다. 연구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이민영박사로 부터 우리말로 첨단기술의 작분야에 걸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우리의 두뇌가 세계 도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마저 느낄 수 있었다.

△ 우리가 코스타리카를 방문하고 돌아온 후에 우리나라 中小企業中央會 韓瑤諒會長이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간의 經濟協力관계를 현실화 시켰다는 사실을 신문을 통해 본바 있다. 變壓器의 경우 코스타리카는 生産공장이 소규모로서 100kVA미만은 자체생산하고 그 이상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 외국과의 합작투자를 적극 희망하고 있었다.

• 尹太石 :

△ 美國의 GE中央研究所는 그 규모가 우리나라 KAIST에 비해 10배이상 되지 않나하고 생각했다. 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소라기 보다 연구개발을 소홀히 한다면 기업이 망할 것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위한 연구소

가 아닌가하고 느껴졌다. G·E의 증기터어빈공장은 세계 최대중의 하나이며 그 진통과 축적된 기술은 아무도 따라 잡을 수 없음을 느꼈다.

△ 에디슨電氣協會는 마치 우리나라 韓國電力公社의 調査部 또는 기술연구소와 같은 느낌이다. 우리 大韓電氣協會도 그와같은 업무수행을 위한 기술인력이 확보되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 코스타리카 電力公社는 주로 日本메이커들로부터 發電設備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었다.

*** 北·中美地域에 대한 輸出展望과 市場 開拓에 대한 意見**

• 崔相得 :

△ 北美... 特殊金屬의 부품공급은 가능할 것이나 그의 발전설비는 어려울 것 같다.

△ 中美... 국제경쟁력만 축적된다면 産業설비를 포함한 일반상품의 수출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되며 中美全體를 겨냥한 現地法人 형태의 合作投資가 유망할 것으로 생각된다.

• 元容善 :

配電선로용 電柱의 輸入에 관해 느낀바를 한마디 하겠다. 美國이나 카나라는 과거 120년 동안이나 木柱를 사용해 왔으나, 都市 미관상 白色페인트 칠을 하는데 막대한 인건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이제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서만 木柱가 생산되므로 운반비가 많이 들게 되어 수명이 2배나 되며 가격도 싼 콘크리트 電柱로 대체할 시기가 되었다고 현지 電力會社 幹部들도 시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파나마, 코스타리카의 中美제국은 현재 콘크리트 電柱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電柱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우리 韓國이 이들 각 나라에 제작기계의 수출은 물론 현지공장을 설립하는 동시 인력수출도 유망할 것으로 생각된다.

• 金光錫 :

이번에 우리가 訪問한 캐나다, 美國을 제외한 관심의 대상인 北·中美지역과 주변 국가들의 최근의 경제활동(무역과 관련)에 대해 말할까 한다.

2차産業이라고는 거의 없는 이들 국가들은 기형적 産業構造 때문에 본질적으로 많은 失業人口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곧 정치불안과 연결해 인근지역으

로 널리 전파됨으로써 급기야는 中美와 카리브해의 전 제국가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美國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카리브地域 開發促進策」(CBI : Caribbean Basin Initiative) 이라는 획기적인 貿易特惠政策을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95년까지 노력을 지니는 이 CBI는 한마디로 美國이 지정하는 CBI수혜국에서 35%이상 부가가치가 붙어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美國이 수입관세를 붙이지 않고 상품을 사들여 주는 것이다. 이같은 정책은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덤핑관정이나 시장개방을 강요하는 정책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아름든 CBI정책이 발표되면서 수혜대상국들은 이 政策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전무하다시피한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 국내법을 수정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함께 축적된 民族자본이 없는 不利點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목적이 수출과 내국인 屯로자를 많이 고용하기만 한다면 어떤 업종에 대해서든지 外國人投資를 적극 환영하고 나아가서는 美國등 선진국의 기업을 자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安간힘을 쓰고 있다.

물론 美國이나 유럽 東南아시아 국가들도 점차 카리비안 지역에 눈길을 돌리고 있으며 비교적 투자여건이 좋은 나라로 평가되고 있는 몇몇 나라에는 상당수의 외국기업체들이 진출하고 있다. 우리는 이점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본다. 말하자면 對美우회수출 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점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도 봉제업체를 비롯하여 도미니카共和國 온두라 파테말라, 코스타리카에 중소규모의 자본이 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들 모든 국가들이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저렴한 노동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투자요인이 될 것이다.

• 元容善 :

좋은 말씀을 해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타리카의 실정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다.

코스타리카는 코피, 바나나, 원당 쇠고기등이 가장 중요한 생산품인 농업국가로 工業化를 서두르기 위해 적극적인 外資유지정책을 펴고있다. 특히 전통적인 수출을 제외한 非傳統 수출산업과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투자를 우대키로 하고 있으며 외국인財産에 대해서는 法으로 투자를 보장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内外國人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 金炯全 :

파나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다. 이미 신문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파나마는 中南美제국의 외채 누적에 따른 수입경기 침체와 특수경기의 퇴조로 고민하고 있다. 현재 파나마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內國入의 제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권장하는 한편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파나마는 中南美에서 최초로 自由貿易地帶를 운영하는등 비교적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파나마는 자국화폐보다 美國의 달러가 통용화폐이기 때문에 통화의 평가절하의 위험은 전혀 없다. 뿐만아니라 외환관리에는 아무런 규제조치가 없어 果實송금이 자유로운데다, 자본금 배당금 및 기타 자금의 유출입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파나마에 주재하는 한국 무역관은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유망업종으로는 농기구, 전자제품조립, 자동차부품등 11개업종을 꼽고 있는데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뛰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 韓斗錫 :

고무적인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도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아 투자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되나 인접국가의 정치, 경제적인 제반현실등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세밀한 검토를 하는등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 趙宰英 :

캐나다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다면 상품수출입 및 기술협력등 보다 많은 교역이 가능할 것으로 믿어진다.

그것은 캐나다는 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對外지향적이라는 점과 교역량의 70%를 미국에 의존해 왔으나 최근에는 日本 및 EC 및 개발도상국과의 다각적인 교역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 金光錫 :

유익한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다. 여러분들의 귀중한 소감들이 모두 우리 전기계의 발전과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으며 여러분의 健勝과 幸福을 기원하면서 오늘의 간담회를 이만 마치기로 하겠다. *